

상생뉴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설 대수송 대비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으로 열차안전 확보!

- 전국 279곳 철도현장 점검... 지적 개소는 설 전까지 조치 완료 -

안전품질실(실장 정천덕)은 설명절 대수송 기간 중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279개 현장에 대한 '설수송 대비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공사현장에서 총2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돼 명절 전인 지난 13일까지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설 명절 중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공단, 국토교통부, 교통공단 및 철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비롯해 공단의 5개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에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시행했으며 전체 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외부전문가 27명을 포함 총 1,155명에 이른다.

특히 공단 CEO를 포함한 전체 경영진도 지난달 22일부터 24일,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주요 점검개소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구간 및 취약개소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와 설 연휴기간 동안 현장근무자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사전 확인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선로변 인근의 가시설물 변형 여부 ▲굴착으로 인한 노반이완 및 비탈사면 붕괴 우려개소 등 취약개소 관리실태 ▲철도노선 중 도로를 통과횡단하는 구간의 지장물 및 침하, 균열 여부 ▲안전울타리 등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물 설치실태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설현장 주변 결빙방지 조치 및 제설용 방재물자 확보상태 등이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철저한 선제적 예방점검 활동 및 현장의 안전품질문화 정착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사 건축공사' 착수

-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열차를 함께 이용 가능...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사 건축공사를 올 4월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역사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역은 수서에서 출발해 지제(평택시)역까지 가는 수도권고속철도 노선의 중앙에 위치하며 광역급행열차(GTX 삼성~동탄간)의 종착역으로 두 개 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에 건설되는 고속철도역사이다.

본부는 사업비 813억원을 투입해 지하6층 연면적 6만3,000㎡ 규모로 동탄역사를 건설하게 되며 414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과 KTX/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에는 여객안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소음 방지를 위한 금속흡음재와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역사 상부에는 동탄 1, 2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녹지를 만들고 지하 2층 및 4층에는 주변 신도시 상업시설과의 연결통로를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탄역사 건설이 착공되면 1,014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역사가 개통되면 평일 첨두시(peak time 1시간) 기준 고속철도는 15분 간격으로 4회(편도), 광역급행철도(2021년 이후)는 10분 간격으로 6회(편도) 열차가 운행할 예정으로 동탄신도시 입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속철도 및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 경기 동남부권이나 부산역, 광주·송정역까지 별도의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지하에 건설되는 고속철도역사인 만큼 건설자재, 장비 투입 및 콘크리트 운반·타설 등 제약조건이 많아 난공사로 예상되지만 철저한 안전, 품질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한 수도권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동탄역사 신축공사 개요



• 시설규모

구분	규모(㎡)	비고
동탄역사 신축공사	역사	22,750
	지하주차장	25,327
	승강장(4호 6선)	10,049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90-5번지 일원

- 구조/층수: 철근콘크리트조/지하6층
- 수송수요: KTX 11,707명/일, 광역급행철도 45,517명/일(26년)



전기개량사업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났다

- 올해 사업비 1,452억원의 89%(1,292억원) 1분기 조기발주 -

시설사업본부는 열차안전운행의 핵심인 철도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63% 늘어난 1,45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292억원(89%) 규모의 공사를 1분기 중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본부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자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 자재구매 등 사전 준비(설계 201건 및 자재구매 28건 기완료)를 작년 말까지 완료했으며 올해 개량사업비 투자를 통해 1,278명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표(취업 및 고용계수 2012년)' : 건설업 10억원당 8.8명 기준

올해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신호안전설비, 지진감시시스템 구축 등 193억을 투입해 KTX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일반철도에는 1988년에 개통한 안산선 노후 전기시설 전면 개량에 180억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1,452억원을 투자해 더욱 안전한 철도를 구현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노후전기설비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도 전기개량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사업내용
합 계	1,452	
고속철도시설개량	193	궤도회로44개소, 선로전환기 50개, 단로기22대, 역무통신설비 2대 등
일반철도시설개량	1,259	
전기설비개량	860	- (전철전력) 안산선 개량 1식, 원제설비 45개소 변전설비 70대, 전차선로26km, 배전선로 53.6km 등 - (신호비)연동장치 7억, 폐색장치 213개소, 궤도회로 343개소, 열차집중제어장치 11개소 등 - (통신)여객안내장치 6억, 광단국 61대, 열차무선 설비 14대, 안산선 개량 1식 등
수도권신호시스템안정화	76	연동장치 4억, 궤도회로 215개소, 폐색장치 119개소 등
철도통신망안정화	30	광케이블 신설 25km 등
선로전환기개량	153	선로전환기 450대, 기능감시장치 28대, 밀착검지기 655개소 등
건널목안전설비확충	44	건널목표준화 29개소, 신호분석장치 21개소, 지장물검지장치 9대 등
전철전원급전안정화	96	금정S/S, 안산SSP 개량 등